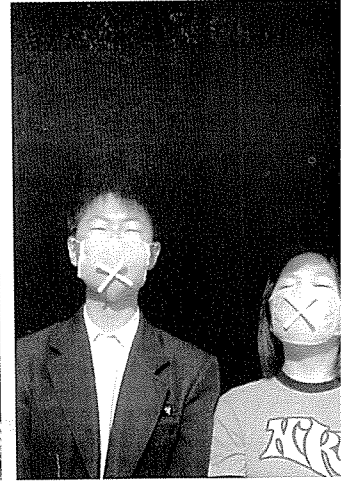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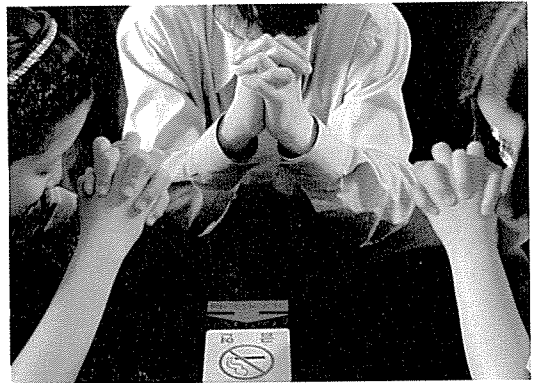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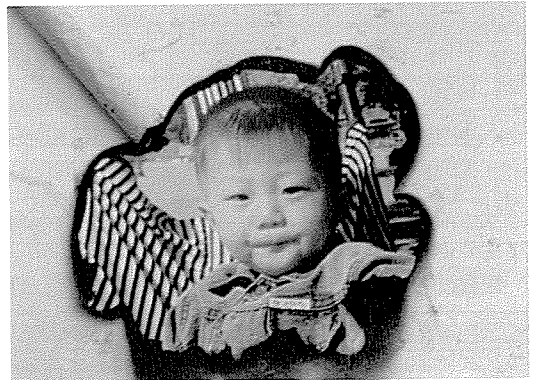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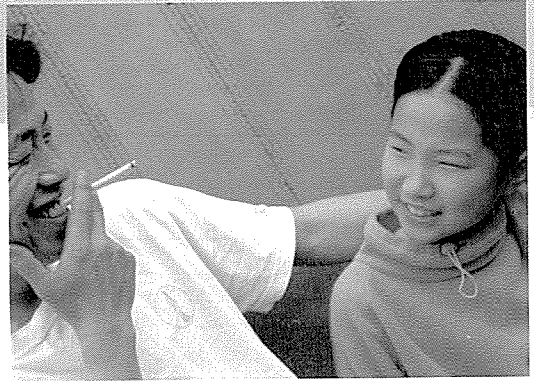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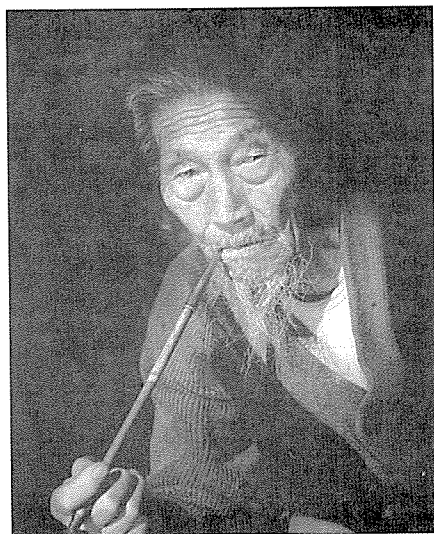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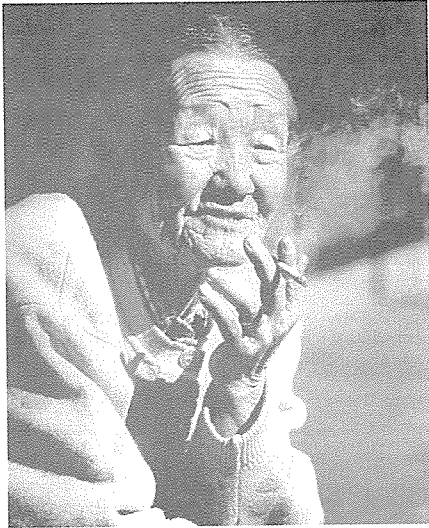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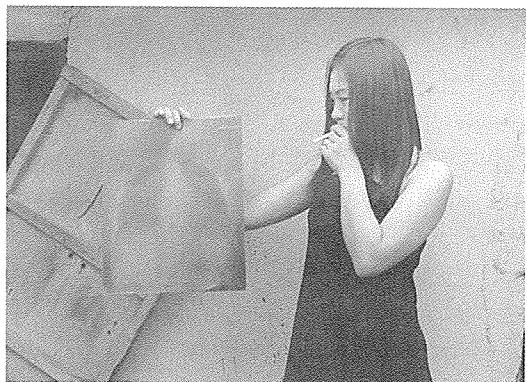


의 선



- ① ③ 김용옥의 '연기속에 꺼져가는'
- ② ④ 지일환의 '곰방대'
- ③ ⑤ 장수경의 '이젠 설 곳이 없다'
- ④ ⑥ ⑦ 짝자향의 '지금 태우고 있는 건 담배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입니다'
- ⑤ 구현모의 '기원!'
- ⑥ 구병균의 '무너진 희망'
- ⑦ 장이철의 '아빠, 금연하세요'

공모 수상작을 되살아



- ① 이살길의 '어휴! 냄새'
- ② 구현모의 '이렇다!'
- ③ 구병균의 '운명의 밤'
- ④ 구도선의 '금연 거리 캠페인'
- ⑤ 오미영의 '오빠! 담배는 싫어요'
- ⑥ 김미례의 '폐는 생각하셨나요?'
- ⑦ 박원석의 '의지'

- ④ ①
- ⑤ ②
- ⑥ ③
- ⑦